

광주·전남 산업현장서 노동자 35명 숨져...전년 대비 5명 ↑

안전관리 소홀 건설현장 25곳 사법 처리, 67곳 과태료 부과 민주노총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 토론회 개최

광주 민주노총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올해 광주·전남 지역 산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35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펴낸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산업 현장 사망 노동자는 광주 9명·전남 26명으로 총 3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가 5명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노동자 30명(광주 7명·전남 23명)이 산업 현장에서 숨졌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전남 건설 현장도 상반기에만 92곳이 적발됐다.
노동청이 올 상반기 공정을 40~90%인 지역 내 건설 현장 142곳을 대상으로 감독한 결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25곳(47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했고, 67곳에 대해선 1억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으로 총 47건(사법 처리 건) 중 안전 난간 미설치가 24건(53%)

으로 가장 많았다. 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거푸집 조립도 미작성 3건(7%), 보호구 미지급 3건(7%)으로 집계됐다. 구조물 붕괴로 6명이 숨진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도 사법 처리 25건과 과태료 부과 68건(8523만원)이 이뤄졌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광주의 경우 잇따른 붕괴 참사 이후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민관 합동 조사 등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7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5층)에서 지역 노동 현장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 임금·안전 관리 열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학동·화정동 참사 이후 광주의 변화' 등의 주제를 다뤘다.
기동취재본부



1회용품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퍼포먼스 하는 활동가들
을 마치고 플라스틱에 둘러싸인 지구를 형상화한 퍼포먼스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지난주 전국 이동량 2억5606만건...폭우여파 4주만 감소

코로나19 이전 동기기간보다 0.9% 줄어

폭우 등의 영향으로 전국 이동량이 4주 만에 감소했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17주차인 지난 8월~14일 동안 전국 휴대전화 이동량은 2억560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인 16주차 2억6858만건보다

4.7% 감소한 수치다.
전국 이동량이 전주대비 감소한 건 지난 13주차 이후 4주 만이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1억3076만건으로 전주 1억3888만건 대비 812만건(5.8%) 감소했다.
수도권 이동량은 1억2530만건으로 집계됐

으며 1주 전 1억2970만건보다 440만건(3.4%)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19년 8월8~14일 전국 이동량 2억5844만건보다 0.9% 감소했다.
휴대전화 이동량은 SKT 이동통신사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를 방문해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집계한다.
김재환기자

하이트진로 옥상 농성...노사협상 난항

16일부터 1층, 옥상 등 본사 점거 농성 진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노사간 교섭이 난항을 겪는 등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노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경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이날까지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소나기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옥상에 있는 노조원들은 "투쟁"을 외치며 농성 의지를 다졌다. 지상에 있는 노조원들은 "조급만 기다려라", "반드시 승리한다"고 외치며 호응했다.

현재 10여명의 조합원들이 옥상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해고철폐, 전원복직, 손배 가압류 철회' 등 문구가 인쇄된 대형 현수막도 내걸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준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 내부에 조합원 40여명이 머무는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노조에 따르면 건물 1층과 옥상에 모두 70여명이 있고, 건물 외부 천막 등에 30여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농성이 이틀째에 접어들었는데 현재까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엔 3개 기동대 등 경력 180여명과 소방인력이 투입된 상태로, 강남경찰서 정보관들이 열화방호복을 통해 식사를 옥상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옥상 문을 걸어잠가 경찰도 내부 진입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1층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소방의 에어매트가 설치됐다.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찰의 중재 하에 13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만 난항이 빚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오후 진행된 12차 교섭에서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아닌 화물 위탁사인 수양물류가 협상에 나서고 있고 손해배상 취하 등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일을 해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본적 인상 수치만큼은 바뀌어야 하고 손해배상 취하는 이번 농성의 제1 목적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측의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노조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2일부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전·청주·강원공장에서 파업으로 인해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이 계약 해지된 것을 무효화하고,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들이 임단협으로 요구한 임금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회차 시 공병 운임의 70% 공회전 비용 제공 등을 하이트진로가 직접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